



허정림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환경공학박사
(jr529@naver.com)

하천이야기 7

노래가 흐르는 강

요즘의 대세는 복고이다. 한 공중파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무명의 작가와 피디들이 뭉쳐서 지나 간 시절을 회고하고 시대적 상황을 다양한 캐릭터들의 주인공들을 통해 그 시대를 노래하고 있다.

그땐 그랬었지, 혹은 나도 그랬는데~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그렇게 설레어 이 드라마에 빠져든다. 뿐 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 드라마는 마치 마약처럼 옛것의 고무함이 아니라 동경과 새로운 문화적 충격으로 감전되어 낯설지 않게 거부감 없이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다. 왜 우리는 추억 속으로 빠져들 때, 묘한 마력의 힘에 취하고 또한 그리워하는 걸까?

그러고 보니 산에 관한 노래보다는 강에 관한 노래가 훨씬 많다고 한다. 아마도 산보다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역사와 관련지어 강과 노래는 이미 떨어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그러하리라. 지난해에 ‘그리움이 흐르는 강’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 역사가 흐르는 강의 이야기를 강물 흐르듯 담담히 써 내려갔을 때도, 아마 내 글의 이면에는 강물이 눈물처럼 뜨겁게 흘렀으리라.

강을 노래한 많은 곡들 중에서 우리 가요사를 알 수 있는 강의 노래를 보면 강의 면면이 어찌면 가사 속에 사연 하나하나가 강물 속처럼 깊고 또 잔잔히 여울져 마음을 헤집어 스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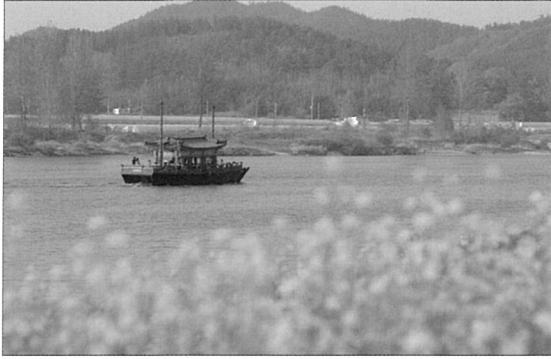
다. 노래란 그 시대를 풍미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어릴 적, 외삼촌은 유독 배호라는 가수를 좋아했다. 그 당시 나는 아마도 예닐곱 살 되었는데 지금의 아이들의 인기에 버금가는 남진이나 나훈아가 아닌 웬지 학교 선생님처럼 답답하게 생긴 아저씨를 좋아하던 삼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삼촌을 유행도 모르는 고루하고 촌스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바로 그가수, 배호의 마지막 노래였다고 하는 ‘꿈꾸는 백마강’은 노랫말은 백제의 멸망을 애닦아 한 노래였지만, 실은 일제 강점기에 널리 사랑받던 노래였다고 한다. 비록 노래의 배경은 백제였어도 의미는 조국을 잃은 민족의 설움을 노래하였기에 급기야 일제는 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하여 어둠 속에서도 불리운 노래였다고 한다. 후에 배호라는 가수가 불러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겨진 노래가 되었다. 그 구성진 가수의 노랫가락이 단명한 천재가수의 허무한 삶만큼이나 깊은 시름이 느껴지는 가사를 음미해 본다.

꿈꾸는백마강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저어라 사공아 일엽편주 두동실
 낙화암 그늘에 올라나 보자
 고란사 종소리 사무치는데
 구곡간장 울음이 찢어지는 듯
 누구라 알리요 백마강 탄식을
 깨어진 달빛만 옛날 같구나

노래 중에는 참으로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멜로디가 경쾌하고 빨라서 재밌고 신나는 곡인 듯하지만 실상 노랫말은 슬픈 것들이 그것이다. 한번은 동창생이 노래를 CD에 넣어 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분홍 립스틱'이란 곡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 정말 신나는 곡이지만 그 노랫말은 정말 슬퍼”

아마도 그 친구는 답답히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평온한 미소를 보이며 말하면서도, 정작 눈에서 눈물을 보이던 그 어떤 소녀에 대한 아련한 추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강의 노래 중 하나가 '처녀 뱃사공'이다. 노래 제목도 처녀뱃사공이니 그에 따른 다양한 소재가 있을 법한데도 역시 강이 이 노래에도 흐른다. 이 노래는 실제 있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으로 지명도 여적 있다고 한다. 배경은 함안군 범수면 약양루 앞 나루터인데 지금은 함안 나들목으로 빠져서 범수방면에 그 '노래비'가 있다고 하니 추억여행 삼아 다녀와도 좋을 듯하다.

이 노래는 처녀가 뱃사공이 될 수밖에 없던 사연을 그린 노래라고 한다. 당시 23살의 처녀 뱃사공의 오빠가 전장에 나가 소식이 끊기자 결국 6.25전쟁에서 전사하자 이에 오빠를 대신



하여 집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처녀 뱃사공이 된 사연이 담긴 노래이다. 이 노래는 1975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멜로디 때문에 가사말의 슬픔을 눈치 채지 못하고 그저 흥얼거렸을지도 모른다. 마치 지금도 많은 이들이 노래방에서 흥에 겨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멜로디 때문에 슬픈 가사는 아랑곳없이 소리쳐 목청껏 불렀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절절히 흐르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설움이 밀려 와 흥겨운 노랫가락이 어찌면 소녀처럼 어떤 이의 가슴을 적실런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강바람에 앞가슴을 헤친다는 절묘한 가사는 고요한 처녀의 가슴을 물결 뿐 아닌 총각들의 가슴도 설레기에 충분할 듯싶다.

처녀뱃사공

1.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큰애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어신 부모님들 내가 모시고

에 해야 데 해야 노를 저어라 샅대를 저어라

2. 낙동강 강바람이 앞가슴을 헤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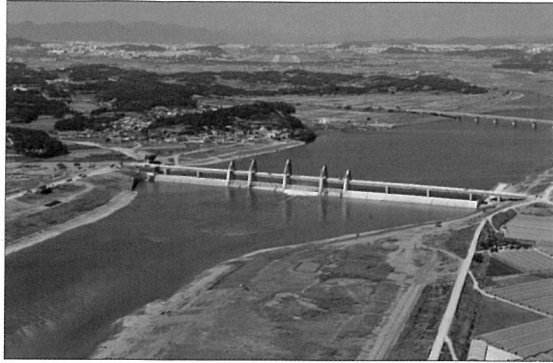
고요한 처녀 가슴 물결이 이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보네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 질때

에 해야 데 해야 노를 저어라 샅대를 저어라

왜 강의 노래에는 총각보다 처녀가 많을까? 한국적 정서에



여성의 설움이 많아서 일까? 강의 노래를 뒤적이다 보면 빼 놓을 수 없는 처녀가 또 한 명이 있다. 그녀는 '영산강 처녀'이다. 이 노래는 떠나간 님을 애앓아 하면서 기리는 애타는 심정을 잘 전달하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서울 간 님의 얼굴 뒤에 보이는 고운 서울색시의 얼굴도 보이고 강물처럼 굽이굽이 흘러가는 세월이 흐름에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 일렁인다. 영산강의 구비 도는 물결은 다시 돌아오건만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보다 옛스런 한국처녀의 아름답고 순백의 사랑이 전형적인 순박한 영산강처녀와 연민에 빠져들게 한다.

영산강처녀

1. 영산강 구비도는 푸른물결 다시 오건만

똑딱선 서울간 님 똑딱선 서울간 님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못잇을 세월속에
안타까운 청춘만가네 길이 멀어
못오시나 오기싫어 아니오시나

아~ 푸른물결 너는 알지 말올해다오

2. 유달산 산마루에 보름달을 등불삼아

오작교 다리놓고 오작교 다리놓고
기다리는 영산강처녀 밤이슬 맺어가며
우리 낭군 얼굴그리네 서울색시 고운
얼굴 정이 깊어 아니오시나
아~ 구곡간장 쌓인 눈물 한이 서린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제일의 강, 한강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

듯이 한강에 관한 노래를 짚어 봐야 한다. 이 중 제일은 역시 한국의 가왕 조용필의 '한강'이다. 그의 노래는 사랑과 설움 그리고 추억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억년에 숨소리로 휘감기는 세월
억년에 물결은 여민 가슴에
출렁이는 사랑 한강은 흘러간다
억년에 물결은 여민 가슴에
출렁이는 사랑 한강은 흘러간다”

이 노랫말을 쓴 작사가는 마치 한강 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노랫말이 한강에 녹아있기 보다 오히려 한강을 적셔 놓고 있다. 이런 멋스럽고 심오한 노랫말에 감히 가락을 붙여 노래 할 수 있는 것은 가히 가왕이었기에 가능할 것이다.

한강

한 굽이 돌아 흐르는 설움
두 굽이 돌아 넘치는 사랑
한아름 햇살 받아
물그림 그려놓고
밤이면 달빛받아
설움을 지웠다오
억년에 숨소리로 휘감기는 세월
억년에 물결은 여민 가슴에
출렁이는 소리 한강은 흘러간다

고운님 가시는 길
 노저어 보내놓고
 그리운 마음이야
 빈베로 흔들리네
 억년에 숨소리로 휘감기는 세월
 억년에 물결은 여민 가슴에
 출렁이는 사랑 한강은 흘러간다
 억년에 물결은 여민 가슴에
 출렁이는 사랑 한강은 흘러간다

세월이 간다.
 나의 노래가 온 곳은 저 아득히 높은 산정의 가녀린
 풀꽃 한 송이였소
 다시 그리우면 나는 뭉게구름으로 여기에서 피어나
 바람타고 하늘하늘 굽이굽이 그곳에 돌아가면 되리라. 🌫️

끝으로 어느 알려지지 않은 강의 노래를 하나 소개하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부를 강의 노래 마지막인 이 노래에 어
 떤 토씨도 달지 않을 생각이다. 그저 이 낯설기만 한 노래가사
 가 가슴에 절절히 박혀 이 글을 읽는 이들의 가슴 속 뜨거운
 강물이 되어 그들의 인생과 가족과 사랑과 용서까지도 굽이
 굽이 흐르길 바라는 마음 한 점을 마침표로 대신하려고 한다.
 강물 위의 물수제비를 띄우듯 사랑의 마음을 강물에 노래를
 흘려 바다에 보내듯이.....

[뭉글뭉글 뭉게구름 바다에서 솟아올라
 바람타고 하늘하늘 굽이굽이 돌아오다
 한 잎의 풀꽃 위에 빗방울로 내려앉아
 이 풍진 한 세상 풀꽃 더불어 살았노라.
 연어가 저 먼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오듯
 이제 귀향의 시간이 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올라 흘러 흐른다.
 때론 까마득한 절벽에 몸을 던져 하얗게 부서지고
 수 없이 찢기고 아우르며 흘러가는 응용거림.
 산이 굽이굽이 돌며 울음이 가라앉을 즈음
 품은 온 풀씨하나 조심스레 어떤 강변에 내려놓고
 흘러 흘러 흐른다.
 흘러 흘러 무거운 것, 배운 것, 게으른 것이 내려앉을 즈음
 나는 바다가 된다.
 돌아보니 내 노래는 끊이지 않고 이어온 기나 긴

